

## 사랑의 기적

혼인 잔치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아닌 혼인을 하게 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한 축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부부끼리 평소에 축복을 빌어주며 사랑을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적당한 술은 축복과 사랑을 노래하는 축매제로 사용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방문한 혼인집에는 축복과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축매제가 이미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축복과 사랑의 노랫말이 넘쳐나야 할 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서는 이를 눈치 채시고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실을 전달하십니다. 사랑을 더 노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성모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의 주인공과 초대받은 모든 이들을 위한 깊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제2독서 “공동선을 위하여” 예수님께 청을 올리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일꾼들에게 말할 따름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성모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뜻에 부합하도록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어 축복의 장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단지 포도주(술)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랑을 우리 힘으로 일궈 나가려 노력하지만 금세 바닥나 버리는 현실을 피조물 안에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나가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풍성한 사랑이 있는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랑이 바닥나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고 사랑을 채우려 하기보다 그 풍성함이 사라질 때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 잔치의 기적은 단지 역사 속 성경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과 같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이 결핍되는 자리에 사랑이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께 청하며 성모님께 전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단지 개인적인 풍성함과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려 봅시다. 또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내가 판단하기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봅시다. 더불어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바대로 사랑을 위해 사랑의 도구가 되어 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봅시다.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기적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한주인 마태오 신부 | 용잠본당 주임

### 주일 진례

2면 2019 교구 부제 서품식

- 제1독서** 이사 62,1-5
- 화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제2독서** 1코린 12,4-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 복음** 요한 2,1-11
-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청원 기도 2 - 보편 지향 기도

이달 '매일미사'(7월호)에 보편 지향 기도 예문(例文)이 빠져있어 신자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가 많은 본당이 참고자료로 제시된 기도 예문을 그대로 전례에 사용하는 바람에 각 공동체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7월호부터 예문을 신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보편 지향 기도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간구하는 청원기도이며, 말씀의 전례 때에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독서나 강론의 주제가 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 가톨릭신문, 538호(1999년)

보편 지향 기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전례 안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고 인류 성화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기에 모든 이를 위한 구원 제사인 미사에서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란 단지 그 기도문을 신자가 읽어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떤 태도 변화가 필요할지, 특별히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들이 누구일지 등에 대한 살핌, 고민과 함께 그날의 독서와 복음 묵상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편 지향 기도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이해와 하느님 말씀의 깊은 묵상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고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런 보편 지향 기도의 준비와 실행만으로도, 공동체의 일치,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화의 길을 걷는 교회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 야고 5:16

### ● 2019 교구 부제 서품식

소식



“2019년 교구 부제 서품식”이 1월 8일 오후 2시 성지여고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서품식에서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5명의 신학생을 부제로 서품하였다. 이날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그리고 각 본당 신자들이 참석하여 새 부제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또래사도 양성연수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마산가톨릭 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에는 29개 본당 중·고등부 학생 임원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연수는 또래사도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는 시간과 “WWJD(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가지는 고민을 서로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활동할 또래사도 대표를 새로이 선출하였다.

● 통영 옥지공소 Pr. 창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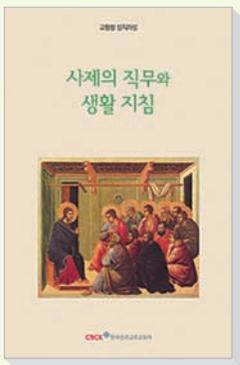


통영 Co.(단장 : 조영근 안토니오) 직속인 옥지공소에서 1월 10일 새로운 Pr. 두 팀이 창단 첫 회합을 가졌다. 이번에 창단된 Pr.은 여성 단원 10명으로 구성된 “하늘의 문”과 남성 단원 6명으로 구성된 “바다의 별”이다. 이날 창단식에는 허성학 아브라함 신부(태평동본당 주임)를 비롯한 태평



동본당 수녀, 회장 등 교구 레지아 간부와 Co. 간부들이 함께하였다. 하늘의 문 Pr.과 바다의 별 Pr. 단원들은 옥지공소 신자 수가 23명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활동과 선교 활동 및 갖가지 봉사 활동으로 공소를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전하였다.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개정판)



- 분류 : 교황청 문헌(성직자성)
- 발행일 : 2018년 12월 21일
- 면 수 : 208면
- 구입 문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2)460-7582~3  
교구청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 소개

“세속화의 만연으로 교회가 입은 가장 큰 해악은 분명 사제 직무의 위기입니다.” 이 지침은 세속화되고 무차별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제들의 성장과 성화를 위한 문서로, 교황청 성직자성에서 1994년에 발표한 초판의 개정판이다. 사제가 자기 생활의 쇄신과 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속주의에 대항할 인문학 지식, 말씀 선포를 위한 대중 매체의 활용, 특별한 사제 영성인 성체성사의 영성과 독신의 의미, 교계와 사제 형제애의 관계, 그리고 구원 경륜에서 솔선하여 역할을 수행하시는 사제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비롯한 여러 주제들을 다룬다.

# 불완전한 나에게

## 언제까지 완벽을 추구하며 버티려는가

###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나는 잘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나? 수없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

지금의 시대는 완벽을 원한다. 외모부터 인성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을 요구한다.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할 수가 없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매일 그렇게 우리는 전쟁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며 치열하게 살고 있다. 그 삶 뒤로 슬픔, 절망, 회의, 허무, 아픔, 눈물을 숨긴 채.

이 책은 세상의 요구에 맞춰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불완전한 내 모습에 하느님 은총이 찾아올 빈틈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영성 에세이다.

저자는 자신의 한계, 모자람, 약함, 상처 등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서라고 초대한다. 죄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없애려고 하기보다 하느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대면하고 인정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한다.

### 상처를 진주로 변화시키기

불순물이나 모래가 조개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조개는 방어력이 없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외투막(진주층)을 분비해 불순물을 감싸고 감싼다. 그 결과 빛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 진주는 조개의 상처가 아물면서 만들어지므로, 만일 조개가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결코 진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빛나고 귀한 진주는 조개가 상처를 입을 때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

우리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불순물이 있는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다. 자신에게 들어온 불순물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유일한 방법은 '진주'를 만드는 것이다.

### 우리의 불완전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느님

이 책에 등장하는 예화들, 성 예로니모의 이야기며 칼릴 지브란의 '어느 광인의 이야기' 중 한 대목은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또한 모세, 기드온, 다윗 등 성경의 인물 이야기가 책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살인자요 말더듬이였던 모세는 한계가 있음에도,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년 다윗은 전쟁으로 단련된 군인이 아니었지만,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파올로 스퀴차토 지음 |  
이창욱 옮김 |  
136쪽 | 바오로딸 |

구입 문의 :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판관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속한 므나쎄 지파는 말단 지파였고, 그의 가문도 보잘것 없었다. 기드온은 자신에 대한 신뢰도 적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부족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는다. 또 타마르, 라합, 룻, 밧세바는 이방인, 창녀 등 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성들이었지만 예수님 탄생의 연결고리가 되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약함의 논리'를 확인시켜 준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느님의 역사가 이 책에서 펼쳐진다.

하느님 눈에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제대로 인정하고 하느님께 나를 맡겨드려야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느님은 부족하고 빈틈이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여기저기, 이곳저곳 구멍이 송송 뚫린 흙 많은 나를 주님께 봉헌한다. 제게 다른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예로니모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다오.”라고 말씀하신 하느님 앞에 나의 죄를 봉헌한다. 주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흡사 완벽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 같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듯하다.

“네가 버리고 싶은 너의 부분을 사랑하라. 그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라. 그러면 마침내 너는 네 안에 소중한 진주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상처를 인식하고 사랑으로 감싸면, 네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보물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성직자 병, 일곱”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3. 관리하는 ‘나와바리’(구역)가 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입니다(사실 모시고 삽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문을 열어 놓으면, 낮 동안 짹짹대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이면 어김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강아지는 사람을 따르고 고양이는 집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만 고양이는 자기중심으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잇과’ 동물들은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조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역(구역) 안에서 속칭 “뺑”을 뜯고, 그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칼부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조폭들은 더 큰 구역을 가지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본이 되기에 구역 확장을 위해서(영화에서 보면)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폭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없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폭력이 아닌 정당한 일의 대가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부님들 사이에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지역 사령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는 어떤 신부님이 자신의 본당 구역에 오셨는데 연락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 반, 장난 반으로 “어이 00신부님, 제 ‘나와바리’에 오셨는데 ‘지역 사령관’인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시지 그랬습니까?”라고 합니다.

##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영혼의 트랙 +  
교구 가톨릭 문인회

박성임 클라라 • 시인

행복을 추구하는 한  
당신은 행복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당신 것일지라도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고  
목표를 가지고 초조해 하는 한  
당신은 평화가 무엇인지 모른다  
모든 소망을 단념하고  
목표와 욕망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세상의 물결은  
당신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며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쉬게 된다 - 헤르만 헤세 『행복』 -

그리고 보니 살아오면서 행복이란 단어를 꼬집어 내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저 해가 뜨고 노을이 지고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우주의 찬미나 감사도 그 어떤 신비도 무뎠던 감성으로 내 곁을 스쳐 지나가게 했다.

“헤르만 헤세”의 시에서 행복은 소망, 목표, 욕망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은 쉬게 된다고 한다. 철학적이며 언어를 초월한 근원적인 행복론이다.

〈아침마당〉에 출연한 100세의 “김형석 교수”의 행복 강의 주제도 나와 일치한다. 참 신기한 우연이다.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다. 교수님은 사랑이 머무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한다. 행복은 오로지 현재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 과거, 미래의 것이 아니다. 젊을 땐 열심히 인격을 쌓고 다음엔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즉 열심히 배운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공이나 결실을 거두어 나 외의 사람, 이웃, 사회에 되돌려줄 때 행복이 생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행복론이다. 뻔한 공식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신학자 “볼트만”은 행복은 신앙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헛된 것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 세상의 알팍하고 힘없는 가치관 대신에 깊고 본질적인 힘을 찾아가는 일이 행복의 추구이자 행복 도달점에 이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본다. 세상의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이해나 관념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지점, 즉 창조적 신비,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아닐까.

**교구장 동정**

일 시 : 1. 22.(화) 11: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내 용 :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파견미사

**전국 홍보국장 회의**

일 정 : 1. 22.(화)  
 장 소 : CBCK

**전국 사회복지, 사회사목국장 회의**

일 정 : 1. 23.(수)  
 장 소 : CBCK

**전국 사목국장 회의**

일 시 : 1. 23.(수)~24.(목) 1박 2일  
 장 소 : CBCK

**교 구**

■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 시 : 1. 21.(월)~22.(화)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사무장 연수

일 시 : 1. 22.(화)~24.(목) 2박 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무처 055)249-7019

■ 주일학교 대표교사 연수

일 시 : 1. 27.(주일) 09:30~16:0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2019년 초, 중·고등부 대표교사

내 용 : 2019년도 청소년국 사목방향 및 행사 안내, 교사관리 시스템 안내, 지구 행사 소개

준비물 : 2019년 교사수첩, 필기도구, 개인 컵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2~3

■ 제11차 교구 청소년 성령세미나

일 시 : 2. 15.(금) 14:00~17.(주일) 16:00 2박 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청소년(예비 고등학생부터 예비 대학생까지)  
 참가비 : 1인 9만 원, 경남은행 593-22-0355398 재)마산교구

신 청 : 2. 13.(수)까지(참가비 입금 순 50명), 신청서 작성 후 교구 청년부로 전송 (Fax 055)249-7055)

준비물 : 미사 준비, 목주,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문 의 : 교구 청년성령봉사회 010-8864-7067, 010-9113-7062  
 홈페이지 : <http://myhs.or.kr> 접속 후 '제11차 청소년 성령세미나 참가 신청' 배너 참고

※ 파견미사 참석 - 2. 17.(주일) 14:00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기 관 · 단 체**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1월 기도 모임

일 시 : 1. 21.(월) 13:30~16:00  
 장 소 : 상평동성당(미사준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제226차 남성 꾸르실료

일 시 : 1. 24.(목)~27.(주일) 3박 4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꾸르실료 055)249-7113

■ 레지오 소년단원 제주 피정

일 시 : 1. 22.(화)~23.(수) 1박 2일  
 장 소 : 제주도  
 문 의 : 레지아 055)249-7115

■ 교구 레지아 평의회

일 정 : 1. 27.(주일)  
 장 소 : 상남동성당  
 문 의 : 레지아 055)249-7115

■ 마산가톨릭상담심리학회 2·3급 수강생 모집

일 정 : 2급 - 2, 4주 (토) / 3급 - 1, 3주 (토)  
 장 소 : 함안 우리농본부 교육장  
 내 용 : 심리상담사 2·3급 자격과정(14주)  
 수강료 : 30만 원, KEB하나은행 160-890028-51604 재)천주교마산교구  
 신 청 : 1. 31.(목)까지  
<http://cafe.daum.net/mscpa> 참고  
 문 의 : 070-8877-3217

■ 가톨릭 진주사물놀이단원 모집

일 시 : 초급 - 3. 6.(수) 19:00  
 중급 - 3. 6.(수) 18:00  
 장 소 : 진주 테마공간 3층(신안동 법원 옆)  
 대 상 : 쇠, 장구, 북, 징 관심있는 분



**라파엘여행사**

- ◆ 2/25 이스라엘, 이태리 12일 (409만원)
  - ◆ 5/7, 6/4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289만원)
  - ◆ 2/18, 3/19 나가사키 4일 (94만 9천원)
  - ◆ 3/1, 3/17 다낭 5일 (129만원)
-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꿀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병원장 강여화(데레사)  
 뇌졸중·수술 후 재활/ 암·노인·치매 병동  
**진주에서 15분, 사천 IC 3분**  
 055)855-8557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http://www.bundotour.com)

- 3월 18일 나가사키 고토 아시아나항공 4일 (125만원)
  - 3월 28일 이탈리아 대한항공 13일 (409만원)
- ※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 02)852-8525

문의 : 진주사물놀이단 010-8813-8993  
 ※ 국악미사 반주자 필요시 연락바랍니다.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고등 방과후 교실 이용자 모집**

일 정 : 월, 수 16:00~18:00(중등 방과후)  
 화, 목 16:00~18:00(고등 방과후)  
 장 소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상 : 중학교 재학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 2명  
 ·고등학교 전공반에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 4명  
 이용료 : 월 12만 원(기간 1년 - 최대 2년 이용)  
 문의 : 복지관 055)237-6487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안내**

베트남 공동체 미사(베트남어)  
 일 시 : 매월 넷째 주 (토) 19:30  
 장 소 : 대건성당 교육관 2층  
 주 레 : 부반단(마르티노)신부  
 문의 : 대건성당 사무실 055)644-3323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의 : 담당자 010-9992-3443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일정 : 매주 (화) 19:30  
 장 소 : 교구청 1층 강당  
 대 상 : 남·여 신자(만 55세까지)  
 문의 :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기 타**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1. 28.~30./ 2. 10.~12./ 2. 14.~16./ 2. 19.~22./ 3. 1~3./ 3. 5.~8.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20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 2. 13.(수)까지(우편신청가능)  
 대 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 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홈페이지 : http://www.ci.catholic.ac.kr (원서다운가능)  
 문의 : 02)745-8339

■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 간 : 3.~12.(2월 예비학교)  
 내 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6.4%)

문의 : 02)828-3600  
 www.donbosco.ac.kr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마 감 : 3. 31.(주일)까지  
 대 상 :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분  
 문의 : 010-7470-7966,  
 http://cyberbible.casuwon.or.kr

■ **50차 터키, 그리스 순례**

일 시 : 4. 1.(월)~13.(토) 12박 13일/ 420만 원  
 문의 :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02)6364-5648, www.terrasanta.kr

■ **2019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안내**

일 시 : 8. 13.(화)~15.(목) 2박 3일  
 장 소 : 대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대 상 :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120명  
 참가비 : 8만 원  
 문의 : 02)2268-7103

■ **나자렛예수수녀회 일일 피정**

일 시 : 상시/ 장 소 : 수녀원 피정집  
 대 상 : 남녀 개인 또는 단체 20명 내외  
 문의 : 피정 담당 010-4686-4903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4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의 : 송진욱 신부 010-3005-9028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 레	문의
교 구	1. 21.(월) 19:00	월남동성당	영적 치유(죄와 악습)	박원석(대전 안드레아)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1. 21.(월) 19:00	반 송 성당	성령에 힘 입으면	김완식(요셉)	정중규 신부(블라르)	010-4553-7425
거제지구	1. 25.(금) 19:30	옥 포 성당	-	이동진 신부(안셀모)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2588-1751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철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가톨릭마산**

**교구보 2019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 **문 의 : 미디어국 055)249-7072**

# ●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을 즐겨 쓰셨다. 복음서에 82회 등장한다. 사도행전(7,56)과 묵시록에도 있다(1,13, 14,14). 몇 번을 제외하곤 모두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한자로 인자(人子)다. 어떤 연유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들도 스승의 이 외침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전승에 확실하게 남았고 많은 횃수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출처 : Google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처음 등장한다. 구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예언서다.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 하느님께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다니 7,13-14).'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느님 통치권을 받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 선언하신 것이다.

다니엘서 7장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2세기다. 당시 이스라엘은 희랍세력 지배하에 있었다. 왕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Epiphanes)였다. 그는 유대인 특유의 저항이 종교에서 나온다고 봤다. 그리하여 유대교 말살 정책으로 율법 폐지와 안식일과 할례 금지령을 내렸다(BC 167년). 여기서 사형이었다. 기원전 167년 12월 16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다. 성전모독과 유대인 박해의 정점이었다. 다니엘서는 사람의 아들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유대민족을 지배했던 네 왕국은 4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다(다니 7,3). 아시리아와 바빌론, 페르시아와 희랍이다. 하느님은 짐승으로부터 통치권을 뺏아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준다(다니 7,14). 다니엘서는 묵시록에 인용되었다. 요한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본다(묵시 13,1).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세력을 상징한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시면 이 또한 끝날 것이라고 했다(묵시 14,4). 이렇듯 사람의 아들은 초대교회 희망이었다. 구원자인 그리스도로 이해되었다. 수난복음의 예수님께서 최고의회에서 심문받으신다. 대사제가 '당신이 메시아요?' 질문하자 이렇게 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마르 14,62). 다니엘서 7장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 ● 돈 = 신神

## # 1. 위험한 외주화

지난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진통 끝에 처리됐다. 하청을 주는 원청 업체의 의무가 확대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24살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와 2016년 구의역 안전문 보수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 군 등 여러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 후에야 가까스로 일어난 변화다. 아직도 많은 사업주는 안전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노동자의 산재보상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한다.

## # 2. 세계 최장 고공 농성 ... 너무 슬픈 기네스북

2015년에 408일 동안 굴뚝 농성을 한 적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이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자 2017년 다시 굴뚝에 올라가 농성한 지 또 422일이 지나면서 세계 최장 농성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종교·사회 단체 대표 네 분이 성탄 전에 동조 단식을 시작하였다. 그중 한 분이 나승구 신부님(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이다. 회사는 약속한 5명 고용 승계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왜 이토록 책

임을 회피하는지,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하는지, 한 회사가 장기간 파업을 하는 동안 정부, 국회, 노동부는 뭘 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나 신부는 노사의 이해 여부를 떠나 저 굴뚝 위에 사람이 있다는, 가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격이 있는 사람, 자기 역사가 있는 사람, 소중한 것들을 간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진다면 어떻게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라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글이 교구보에 게재될 무렵에는 이들이 땅을 밟았다는 소식이 당도해있기를 기도하며 한 끼, 하루 단식으로라도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한다.

일찍이 예수님께서서는 맘몬(돈)이나 하느님이나 둘 중 양자택일하라고 하셨다. 돈과 신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어디서나 존재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돈의 밀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자신이 신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향한 탐욕, 끊임없는 성장, 변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